

예수는 누구인가 (2):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 10-18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17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18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복음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두가지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그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10 절].”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한 인간이 자신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들 가운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 하며, 쉽게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2 천여년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둘째로,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에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및 유대 백성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여러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셨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1 절].”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수립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매우 큰 능력을 가진 한 대언자라고 여기고 그를 질투, 시기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로마 총독에게 압력을 가하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불러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로 오신 사실을 믿지 않으니 그 안타까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당신은 그분을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창조의 역사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주도적 역할을 하신 생명의 주, 참 빛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뿐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에게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사망을 극복하고 하늘 왕국으로 가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영원한 시간을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부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장의 12-13 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1: 12-1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성자 예수님을 닮은 많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구성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창세기 1:26]”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왕국에서 섬기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욥 38:7]’로 불리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문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민족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호’를 그들에게도 개방하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소위 重生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문호가 개방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밝혀진 바로 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복음서 1 장에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16-17]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변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흔히 봅니다. 그 아이들은 보통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를 두고 태어남으로써 자연적으로 그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태어나는 것만으로 한 가정의 일원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아니요, 법원의 판결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 의사가 출생 기록에 서명함으로써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정해지며, 그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 가족 안으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인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이시며 성부 하나님로부터 나오신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영광의 모습을 삼년 반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보았고 그 감격과 기억을 바탕으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구세주 이었음을 간증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 은혜, 충만, 진리 충만에 대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잘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특권을 갖지는 못할지라도, 매일 영으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며, 인도 받으며, 그분을 경배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간증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요 1:15]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 자신이 아니고 침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모계 친척으로서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데 예수님보다 약 반년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 역시 그의 모친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자매들로서 예수님과 서로 이종 사촌의 관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 역시 침례자 요한을 친척 형님으로 서로 잘 알고 있던 관계로 보입니다. 이 15 절에서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사실 나보다 앞선 분인데,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보다 반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하여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침례자 요한이 언급한 내용은 인간적인 출생의 선후 관계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 세상에 자기보다 반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드님이심을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한 앞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11-12]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겹질은 골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요 1: 16-18]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영도력 하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이시는 은혜는 모세를 통하여 보이신 제한적인 은혜를 대체하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을 훨씬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을 인류에게 가져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 오늘날 수 많은 나라에서 읽혀지고, 성경의 가르침들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과 각종 법률로서 구현되어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자신이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철학, 사회의 기강과 도덕 기준,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일을 이야기 하는 매우 소중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을 것이며, 그런 개인은 영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생에서도 말할 수 없는 복을 얻게 되니 이보다 더 훌륭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훌륭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 권면합니다.